

희망을 길어올리는 탄광 노동자들의 비극적 투쟁

기상 캐스터 이익선씨가 뽑은
에밀 졸라의 《제르미날》



“영화와는 또 다른 감동이 있었어요. 작가의 치밀한 묘사와 방대한 스케일은 영화에서 생략된 많은 부분을 보충해 주더군요.”

기상 캐스터 이익선씨(31)가 선택한 책은 에밀 졸라의 《제르미날》(최봉림 옮김, 친구)이다. 그는 이 책을 방송국 선배로부터 선물받았다.

“이 책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문호라는 칭호가 아무에게나 붙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강한 전류가 내 몸을 관통한 듯한 느낌이었죠.”

프랑스 북부의 탄광에서 일어나는 동맹파업을 그린 이 소설은 1933년 프랑스 감독 클로드 베리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익선씨는 영화로 먼저 《제르미날》을 접했다. 그리고 영화에 반해 책꽂이에 꽂아뒀던 책을 찾아 단숨에 읽었다.

“영화와는 또 다른 감동이 있었어요. 작가의 치밀한 묘사와 방대한 스케일은 영화에서 생략된 많은 부분을 보충해 주더군요.”

그가 제일 인상깊게 읽었던 부분은 에스틴이 마을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는 그 대목에서 마을 풍경이 마치 두루마리 그림이 펼쳐지듯 선명하게 떠올랐다고 한다.

그는 어릴 적 탄광촌에서 자랐다. 탄광을 경영하시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후에는 그 역시 어려운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그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도 당시의 체험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탄광 노동자들은 지독한 가난으로 고통받으며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자 파업투쟁을 벌이죠. 노동자들의 투쟁열기는 높아지지만 광산책임자들의 역습을 받고, 심지어 군대에 의해 진압당합니다. 그들의 투쟁은 비록 비극으로 끝나지만, 그 비극 속에는 그들이 간직한 희망이 새겨져 있죠. 결말부분에서 에티엔이 탄광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을 암시합니다.”

요즘 그는 《데미안》을 다시 읽고 있다. 사춘기 때 그가 읽고 또 읽었던 소설 가운데 하나다. 《데미안》을 통해 그는 고전을 다시 읽는 즐거움에 흠뻑 빠져 있다.

“그 시절, 미처 느끼지 못했던 여러가지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크게 와 닿아요. 그게 아마도 고전의 매력이겠죠.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말이에요.” - 최갑수 기자

열린 마당

가장 좋은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 ① 출판의 승부는 기획·편집에 있습니다. 저희 열린마당에서는 경험과 識見을 갖춘 頂上의 편집자·출판미술가·사진작가 등이 온힘을 모아 '21세기를 준비하는 출판물'을 기획·편집하고 있습니다. 雄飛하는 동반자이기를 기대합니다.
- ② 베스트셀러 생활도서·유아도서 및 교구·오디오·비디오 기획·제작의 광범위한 실적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③ 종합마케팅플랜에 근거한 표지·광고·팜플렛도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획·원고작성·번역·편집·디자인·제작·유통

110-121 서울·종로구 종로1가45 서울빌딩 601호
전화: 739-0150(代) 팩스: 739-0160



高品質의 제작

이때까지는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제판·인쇄·제본 등의 工程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고 인력부족 등으로
품질이나 납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삼덕미디어에 맡겨 주십시오.
책임제작시스템으로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高品質의
출판물을 납기일에 어김없이 납품하겠습니다.



110-121 서울·종로구 종로1가45 서울빌딩 601호
전화: 739-0150(代) 팩스: 739-0160
인쇄·제본공장: 465-4707(代)